

退溪門人の 學退溪 精神과 樓亭題詠에 反影된 繼承樣相

이정화*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退溪 文學精神의 본질과 樓亭題詠에 반영된 學問精神
3. 退溪門人の 樓亭題詠에 나타난 學退溪 精神의 의미
 - 1) 天理의 체득을 향한 景濂亭 踏尋
 - 2) 鳴玉臺의 山水와 淸純의 志趣
 - 3) 錦陽精舍에 깃든 超然한 기상
 - 4) 孔孟의 학문과 觀水樓의 사유공간
4. 맺는 말

【국문초록】

퇴계는 산수자연물에 힘입어, 성학에 잠심하여 마음을 편안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서 비롯된 山水之樂을 누정제영을 통해 직접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럴 때에 그의 작품에서, 實景의 敍景은 단지 의취를 알리기 위한 예비적 역할을 할 뿐이다. 퇴계는 누정과 그 주변경관에 대한 시를 제작할 때에도 변함없이 曾子, 顏子, 屏山, 朱晦翁의 학문정신을 되새기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퇴계와 그 문도들이 제작한 경험정 제영시편들은, 대체로 누정과 주변경관은 遊賞의 대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과 자연경관이 그렇게 있는 이유 즉 내재하는 理를 찾아내는데 필요로 하는 관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금계의 경우, 대자연의 모든 생명체에서, 심지어 풀 한 포기에서도 天理를 생각하는 스승의 의취에 공감하며, 자신도 “風月無邊趣”라고 읊조리며 스승에게 속마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음을 보이고 있다. 松巖도 역시, 孟子의 “俯仰不愧天地”를 근거로 하여, 스스로 公明正大한 마음을 일깨우고 있다.

명옥대에 오른 퇴계는 영원한 不動의 자세를 간직한 바위를 예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시상을 의연하게 매듭지었다. 한편, 一竹齋는 속세에 혼탁해진 마음조차 淸寒한 마음으로 치유된다고 설파하여, 명옥대라고 命名한 스승 퇴계의 지취는 바로 이러한 맑고 시원한 마음을 함양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또, 訥隱의 경우, 스승이 밟아간 길을 기꺼이 좇으며, 그의 학문을 계승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자긍심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퇴계는 卒去한 제자 錦溪의 이루지 못한 宿願을 돕기 위해, 1566년에 금양정사에 대한 完帖을 제작한 바 있다. 이후, 謙庵은 이 완첩에 대한 跋文을 지어서, 師弟關係로 맺어진 퇴계와 금계의 인연에 대해 상술하였는데, 生死를 초월한 師弟間의 영원한 交分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금계의 제형시는 퇴계시의 영향을 받아 그 意趣가 강조되는데, 이는 곧 혼탁한 塵世에서 때를 묻히는 것을 혐오하여, 신선의 공간으로 인식된 산수에서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꿈꾸는 超逸의 경지다.

한편, 퇴계는 관수루에 올라 이곳이 바로 “妙悟” 즉 요묘한 깨우침을 知覺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라고 칭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의 이치가 군자의 수양과 비슷하다고 여겨 물을 예찬했던 공자의 가르침에 공감하였다. 또, 忠君 이외에는 여념이 없을 때 그의 마음은 公人意識을 표출하게 된다. 江臯의 시에서는 “觀水固有術”을 읊조리며, 흥취보다는 향학열이 갖든 의취를 드러내려 애쓰는 가 하면, 性齋의 작품에서는, 빼어난 안목을 지닌 시인기질을 보일 뿐만 아니라, 웅대한 기상을 펼쳐 보이기가까지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퇴계에서 있어서 자연에 대한 酷愛과 학문에 대한 熱情은 불가분의 것이었거니와, 이는 퇴계학파의 문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후대에까지 處士文學의 본보기로 계승되어왔다. 본고는 누정제영에서 확인된 意趣를 통하여, 퇴계를 흠모하는 그들의 마음속 읽을 수 있었다.

주제어 天理, 淸寒, 超逸, 向學熱

1. 들어가는 말

퇴계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聖人の 학문을 공부하는 시기는 인생의 일정한 기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선비로서 평생 행해야 할 本業이었던 것이다.

『論語』에서도, 儒者에게는 德으로 나아가는 차례가 있어서, 공부하는 자는 반드시 법을 세워 구덩이를 채운 이후에야 나아간다고 한 말¹⁾이 있는가 하면, 學者는 첫째, 한가로이 自得하여 聖學의 은혜가 몸에 폭 젖어 들게 해야 하며 단계를 뛰어넘어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과, 둘째, 공부하는 사람은 日就月將해야 하며 중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²⁾이 강조되어 있다.

따라서, 優遊涵泳을 실현하기 위하여 퇴계와 그의 제자들이 처소 가까이 에 누정과 같은 講學의 공간을 짓는 것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사업이었던 것이다. 퇴계는 평소 제자들과 함께, 누정과 같은 탁 트인 공간에서 유자가 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대해 성찰하였으며, 학업에 힘쓰는 것을 더욱 충실하고자 하였다.³⁾

번잡한 朝市와는 거리를 둔 背山臨水の 勝景地에 누정을 세우는 일은 선비의 삶에 錦上添花와 같은 생활을 제공하였다. 퇴계가 강학했던 근거지를 중심으로 하여 집중되어 있는 퇴계 문도들의 누정은 그야말로 光風霽月의 名所가 많다.

퇴계 문도들이 제작한 누정제영에서는 스승 퇴계와의 추억이 깃든 누정

1) 『論語』 卷之二 「爲政」. “孔子自言其進德之序如此者 聖人未必然 但爲學者立法使之盈科而後進.”

2) 『論語』 卷之二 「爲政」. “聖人言此 一以示學者當優遊涵泳 不可躐等而進 二以示學者當日就月將 不可半途而廢也.”

3) 李貞和, 「退溪詩 研究-樓亭漢詩를 中心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2집, 한국사상문화학회, 1998, 참조.

을 찾았을 때의 심정과, 퇴계와 사별한 후에 스승의 누정제영이 남아 있는 곳을 답심했을 때의 마음이 표출되며, 간혹 독자에게 누정 주변의 빼어난 풍광을 선사하기도 한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검토해 보건대, 누정시를 비롯한 누정제영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으나, 퇴계 문도들이 제작한 누정제영을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스승 퇴계의 학문정신이 어떻게 계승 발전되었는지를 究明한 것은 尠無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퇴계의 누정시에 내재하는 도학적 시정신의 본질에 대해 고찰하고, 아울러, 퇴계 문인들의 누정제영에 수용된 학퇴계 정신의 양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退溪 文學精神의 본질과 樓亭題詠에 깃든 學問精神

퇴계는 「自銘」을 지어, 晩年에 이르러 체득한 悔悟的인 삶의 인식을 근간으로 하여 자신의 묘지명을 남기었는데, 이것은 그가 살아온 삶을 반추하고 있어서 회고록을 연상케 한다. 여기에서 그는 오로지 학문하는 삶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벼슬하는 삶에 대해서는 별반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또, 인생의 방향은 애국심과 상반되지 않는 것이며, 聖人의 가르침이 그 指標임을 알 수 있다.

나면서부터 어리석기 짝이 없었고, 성장하여서는 병도 많았구나. 중년엔 어찌하다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며, 늦게서야 어찌하여 벼슬을 만났던가? 학문은 구할수록 멀어지고, 벼슬은 싫다하여도 더욱 더 주어지는구나. 나아가는 길이 험해 볼러나 수양할 마음 곧았네. 임금의 은혜 매우 부끄럽고 성현의 말씀 참으로 두렵구나.

산은 높이도 솟아 있고 물은 쉬 없이 흘러가네. 벼슬하기 전의 처음 뜻을 그대로 좇으니 못 사람의 비방을 떨쳐 버린 듯하구나. 나의 회포 여기서 막히니

나의 패옥 누가 만져주리? 내 스스로 옛 사람 생각하니 진실로 내 마음 부합되네.
앞으로 올 세상 어찌 알리? 현실도 알지 못하거늘. 근심 속에서도 즐거움 있고
즐거움 속에도 근심 있네. 자연의 조화를 따라 돌아가니 이 세상에서 다시금
무엇을 구하리오?⁴⁾

퇴계가 嘉言과 善行으로 言行一致 내지는 知行合一을 실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을 뿐더러, 제자들에게 儒家的 삶의 목표와 이와 관련된 실천
방법을 적극적으로 일깨워뒀던 사실은 周知하는 바이다. 이로 인하여, 聖人
의 말씀을 좇아 평생 학자의 마음을 견지해 공부하였던 것이 퇴계문도들의
생활철학의 핵심이 되었다.

19세기에 와서도 『東賢學則』⁵⁾의 제작을 통해, 스승의 佳言과 善行이
생활신조임을 밝혔던 점과, 20세기에, 그것을 藍本으로 하여, 『東學』⁶⁾이
제작되어 영남지역 儒者의 언행을 신칙하였다는 점은 퇴계의 삶과 정신을
존모하는 제자의 마음이 현대에 까지 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

퇴계의 시문 역시 퇴계학파의 문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바, 이는
스승의 도학정신을 계승하려는 제자들의 열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시문은 조목을 비롯한 16세기 영남지역 在地士族 출신
의 퇴계학단이 펼쳐 보인 처사문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⁸⁾ 그 한 예
로, 조목의 수많은 酬唱詩 제작과,⁹⁾ 유성룡이 견지한, 문학에 의한 학문

4) 『退溪先生言行通錄』 卷1 「先生自銘」. “生而大癡 壯而多疾 中何嗜學 晚何叨爵 學
求猶邈 爵辭愈嬰 進行之殆 退藏之貞 深慙 國恩 懼聖言 有山嶷嶷 有水源源 婆
娑初服 脫略衆訕 我懷伊阻 我佩誰玩 我思古人 實獲我心 寧知來兮 不獲今兮 憂
中有樂 樂中有憂 乘化歸盡 復何求世”

5) 黃德吉, 『東賢學則』.

6) 李祥鎬, 『東學』.

7) 이정화, 「退溪 李滉의 言行論에 대한 考察 - ‘東學’ 관련 書冊을 중심으로」, 『韓民族
語文學』 제46집, 한민족어문학회, 2005, 235쪽.

8) 이종호, 「월천 조목의 문학세계」, 『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참조.

9) 이종호, 앞의 책, 86쪽.

교육 자세와, 10) 정구의 道本文末의 문학관과, 11) 조호익이 詩敎를 통해 학자적 삶에 대한 실천의지¹²⁾를 띤던 것들을 들 수 있다.

퇴계의 학문정신은 知行合一을 실천하려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변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으며, 그의 언행은 곧 儒者의 본보기이고 법식이 되었다. 퇴계에게 학문은 결코 과거급제를 위한 일회적 도구가 아닌 것이며 생활 속의 恒道와 관련된 것인데, 이점은 다음의 시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靑山은 옛데흐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옛데흐야 晝夜에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 호리라¹³⁾

이 노래는 學問이야말로 生活 속의 恒業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인데, 산과 물 같은 자연물의 生의 이치가 '변함없음'을 전제로 하여 인생 또한 변함없이 학문을 연마하는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인간, 곧 聖人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위에서 靑山과 流水는 어질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회구하는 儒家의 생활철학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¹⁴⁾

옛날 사람으로 산림에 낙을 붙인 자를 보면 역시 두 가지가 있다. 玄虛를 사모하고 高尚을 일삼기 위하여 즐기는 자도 있고, 도의를 즐기고 심성을 수양하

-
- 10) 김시황, 「서애 유성룡의 문학세계」, 『退溪門下 6祈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참조.
 11) 박영호, 「한강 정구의 학문정신과 문학관」, 『退溪門下 6祈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참조.
 12) 황위주, 「지산 조호익의 시문학 세계」, 『退溪門下 6祈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참조.
 13) 『退溪先生文集內集』 卷43 「陶山六曲之二」其五.
 14) 『論語』 卷之六 「雍也」,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기 위하여 즐기는 자도 있다. 전자를 따라 말한다면 혹시 제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운상을 어지럽히는 데에 흐르고, 보다 심하면 禽獸와 더불어 짝이 되어 도 그르다고 여기지 않을까 두려우며, 후자를 따라 말한다면 좋아하는 바가 다만 성현의 糟粕 뿐이라, 그 전할 수 없는 묘법에 이르러서는 찾을수록 더욱 얻지 못하니 즐거움이 무엇이 있겠는가. 비록 그러나 차라리 후자를 위하여 스스로 힘쓸지언정 전자를 위하여 스스로 속이지는 않겠다. 또 어느 겨를에 이른바 세속의 명예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겠는가.¹⁵⁾

위에서 보면, 퇴계는 道家들의 귀거래 생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敬사상을 삶의 신조로 한 그가 도가들의 삶을 오만한 것으로 인식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는, 도가들의 귀거래는 홀로 고상하게 살기 위한 은둔 생활인데, 이것이 곧 사람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오만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한 것이다. 사실상 퇴계는 세상의耳目에 신속하게 영합해 살아가지 못하는 등 세상과 뜻이 맞지 않아, 더욱 학문에 뜻을 둔 것이므로, 그의 귀거래는 산수자연 속에서 安分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퇴계는 어쩔 수 없이 산수자연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山水之樂을 알았고 이로 인해 삶의 목표가 山林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는데, 이러한 심정은 다음의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제야 비로소 관직에서 벗어나 발이랑에 본분을 세우니, 前日의 이른바 산림의 즐거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에 닿았노라. 그렇다면 나의 지금의 쌓인

15) 『退溪先生文集內集』 卷3 「陶山雜詠并記」. “觀古之有樂於山林者 亦有二焉 有慕玄虛 事高尚而樂者 有悅道義 頤心性而有樂者 由前之說 則恐或流於潔身亂倫 而其甚則與鳥獸同羣 不以爲非矣 由後之說 則所嗜者 糟粕耳 至其不可傳之妙 則愈求而愈不得 於樂何有 雖然寧爲此 而自勉 不爲彼而自誣矣 又何暇知有所謂世俗之營營者 而入我之靈臺乎”

병을 낮게 하고 숨은 걱정을 확 풀어 버려, 늘그막에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를 버리고 또한 어디서 구할 것인가.¹⁶⁾

산수자연이 퇴계에게 주는 혜택은 出處進退의 갈등에 의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는 산수자연물에 힘입어, 성학에 잠심하여 마음을 편안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서 비롯된 山水之樂을 밝히었다.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된 시들은 경치와 사물에 의탁하여 시인의 主意를 드러내는 것이 특징적이다. 먼저 寫景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 敘情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통하여 物象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退溪의 경우, 산수자연의 實景이 최소한의 시의 배경 역할을 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눈으로 산수자연을 보면서, 心眼을 열어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뜻을 밝혀내려 한다.

天淵臺

縱翼揚鱗孰使然
流行活潑妙天淵
江臺盡日開心眼
三復明誠一巨編¹⁷⁾

천연대

새 날고 고기 튀이 누가 시켜 그러한가
流行이 활발하니 천연 이치 오묘하구려.
江臺라 종일토록 마음의 눈이 열려
대작의 明誠編을 세 번 거듭 외운다오.

이 시는 그가 자연 속에서 새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천연의 이치를 보고, 心眼이 열리게 된 상태임을 말해준다. 특히 안팎을 통해, 江臺에서 생동하는 자연물의 生生之理를 체득하고, 그도 또한 자신의 生生之理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깨닫게 된다.

16) 『退溪先生文集內集』卷3「陶山雜詠并記」. “乃始脫身樊籠 投分農畝 而向之所謂山林之樂者 不期而當我之前矣 然則余乃今所消積病 豁幽憂 而晏然於窮老之域者 舍是 將何求矣”

17) 『退溪先生文集內集』卷3「陶山雜詠 十八絕」其十二.

이 시의 의취는 “明誠”에 담겨 있으며, 이는 그가 자연에서 誠의 본질인 天道를 보고, 자신 또한 마땅히 인간 본연의 道인 性を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보면, 實景의 敘景은 단지 의취를 알리기 위한 예비적 역할을 할 뿐이다.

『中庸』의 ‘誠’은 過不及이 없는 상태에서 도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일시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짐을 이르는 것이다. 퇴계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작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巖栖軒

曾氏稱顏實若虛
 屏山引發晦翁初
 暮年窺得巖栖意
 博約淵水恐自疎¹⁸⁾

암서헌

曾子는 顏子더러 實若虛라 칭했는데
 屏山이 처음으로 晦翁을引發했네.
 巖栖의 깊은 뜻을 늙어야 알았으니
 博約 淵水 스스로 소홀할까 두렵구려.

안쪽에서 “曾子, 顏子, 屏山, 朱晦翁”은 옛 성현을 대표하는 인물들 예로 든 것이다. 이 시는 實景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바깥쪽의 “巖栖意”에서 알 수 있듯이, 의취를 말하려 쓴 것임을 알려줄 뿐이다.

이 시의 의취는 안쪽의 “實若虛”와 바깥쪽의 “博約淵水”에 담겨 있다. “實若虛”에 담긴 의취는 虛靜한 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孔子처럼 자아에 대한 모든 집착, 즉 아집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베개 삼고 있어도, 걱정이 없으며,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다.¹⁹⁾

“博約淵水”에 담긴 의취는 謹慎의 마음이다. 이는 『詩經』²⁰⁾에서 유래한 말로써, 張蘊古가 “모든 일을 다루는데 있어서, 살얼음을 밟듯 조심하고 깊

18) 『退溪先生文集內集』 卷3 「陶山雜詠 十八絕」其二.

19) 『論語』 「述而」. “飯蔬食 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20) 『詩經』 「小雅」.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臨薄水”

은 못에 이른 듯 경계하며, 추호라도 바른 도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여, 周의 문왕처럼 삼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온전히 본받아야 한다.”²¹⁾고 설명한 말이기도 하다. 이렇듯 퇴계는 누정과 그 주변경관에 대한 시를 제작할 때에도 변함없이 修己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퇴계는 어쩔 수 없이 산수자연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山水之樂을 알았고 이로 인해 삶의 목표가 山林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는데, 산수자연이 퇴계에게 주는 혜택은 출처진퇴의 갈등에 의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산수자연물에 힘입어, 성학에 잠심하여 마음을 편안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서 비롯된 山水之樂을 누정제영을 통해 직접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럴 때에 그의 작품에서, 實景에 대한 敍說은 단지 의취를 알리기 위한 예비적 역할을 할 뿐이다. 퇴계는 누정과 그 주변경관에 대한 시를 제작할 때에도 변함없이 曾子, 顏子, 屏山, 朱晦翁의 학문정신을 되새기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3. 退溪門人の 樓亭題詠에 나타난 學退溪 精神의 의미

1) 天理의 體得을 향한 景濂亭 踏尋

景濂亭은 풍기읍 순흥면 紹修書院 입구의 물가에 위치한 亭子로 주세붕이 세운 것이다. 퇴계와 그 문도들이 제작한 경험정 제영시편들은, 대체로 누정과 주변경관은 遊賞의 대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과 자연경관이 그렇게 있는 이유 즉 내재하는 理를 찾아내는데 필요로 하는 관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1) 『古文眞寶 後集』卷之五, 「大寶箴」, “撫茲庶事 如履薄臨沈 戰戰慄慄 用周文小心”

景濂亭

草有一般意
溪含不盡聲
遊人如未信
蕭灑—虛亭²²⁾

경렴정

풀에는 한결같은 뜻이 있고
시냇물은 끝없는 소리를 머금고 있네.
流浪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씻은 듯이 깨끗한 한 정자일세.

이 작품 <景濂亭>은 지금도 이亭子에 편액으로 걸려 있다. 이亭子와 周邊 景觀을 꾸미는 일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자신과 풀, 그리고 시냇 물에 함께 내재하는 “理”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에게 있어서 삶의 이치는 곧 하늘의 이치이다. 퇴계의 사유인식은 대자연의 모든 생명체에서, 심지어 풀 한 포기에서도 하늘의 이치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그의 사유인식이 인간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次景濂亭

寒輪衆峭色
碧壓—溪聲
風月無邊趣
乾坤—小亭²³⁾

경렴정시에 차운하여

차가운 달은 선명한 빛을 가득 채워
푸른 빛으로 한 시냇물 소리를 누르네.
풍월은 끝없이 의취를 일깨우니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우는 한 작은 정자일세.

이 작품은 龔巖의 孫壻가 되며, 퇴계의 문인이었던 錦溪 黃俊良 (1517-1563)의 것으로, 스승의 제영시에 갖든 의취에 공감하여 이에 차운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금계가 “風月無邊趣”라고 읊조린 것에서 스승의 의취를 되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렴정>시에서, 퇴계는 단순히 유량만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조차

22) 『退溪先生文集別集』卷1.

23) 黃俊良, 『錦溪集外集』卷三.

도 소쇄한 의취를 일깨우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금계는 이러한 스승의 뜻을 헤아려, 끝없이 자신의 의취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起句와 承句를 통해, 작가 자신은 淸靜한 미의식을 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그의 정신은 둥근 달로 인하여 밤의 풍광이 더욱 아름다워지게 된 과정을 묘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있어서 주목하게 된다.

경림정의 풍광 묘사는 천지만물과 더불어 일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 처하였음을 보여주는 장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성학의 뜻을 깊이 체득해야 진정한 물아일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퇴계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퇴계에 따르면, “성학은 인을 추구하는 데 있다. 마땅히 이런 뜻을 깊이 체득하여야 천지만물과 더불어 일체가 되는 것이, 진실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²⁴⁾는 말이 있다. 경림정에 오른 금계의 마음은 퇴계의 마음과도 합치되어 있어서, 前篇한 스승의 의취에 이렇듯 潛心하고 있는 것이다.

次景濂亭

山作金扉畫

溪傳玉佩聲

游人多少趣

俯仰一孤亭²⁵⁾

경림정 시에 차운하여

산은 아름다운 병풍 그림을 펼치고

시냇물은 패옥 소리를 전해주네.

유랑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의취를 얻는다면

우러러보고 굽어보는 한 孤芳한 정자일세.

위의 시는 일찍이 宦路를 떠나 草野에서 處士의 삶을 실현하였던 松巖 權好文(1532-1587)의 작품이다.

경림정의 자연풍광은 일찍이 선비들의 사랑을 받아 왔으므로, 송암이 위의 시를 읊조릴 때에도 여전히 尙古의 정신을 되새기는 수양의 공간으로

24) 『退溪先生文集內集』卷7「筓」〈西銘圖〉. “蓋聖學在於求仁 須深體此意 方見得與天地萬物爲一體 眞實如此處.”

25) 權好文, 『松巖集』卷 一.

인식되었다 하겠다. 이 시의 안팎에서, 송암은 한 폭의 산수화를 펼쳐 보이기 에 충분할 정도로 이 곳의 자연에 매료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의취를 나타내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있으므로, 자연 묘사는 단지 시의 배경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따름이다.

바깥쪽에서, 餘白의 美感을 발휘하면서 의취를 강조하는 것에 신경을 쓴 점은 <경림정>시를 제작한 퇴계의 시정신을 흠모하였기 때문이다. 즉, 송암의 시는 산수생활의 즐거움을 단지 자연물에 대한 음풍농월로써 허비하는 사람은 遊人에 지나지 않는다는 퇴계의 사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퇴계는 산수 생활이 단지 자연물을 완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문을 연마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산수자연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수반될 때에야 비로소 음풍농월의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풍류정신까지도 함께 체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²⁶⁾

위의 시 가운데, “俯仰一孤亭”에서는 송암 또한 퇴계의 이러한 자연관에 힘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늘을 우러러 보나 세상을 굽어보나 양심적으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聖人の 가르침을 송암 스스로 되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바깥쪽 下句는 孟子의 “俯仰不愧天地”²⁷⁾에 근거를 둔 말이며, 이를 통해, 시의 의취가 公明正大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鳴玉臺의 山水와 淸純의 志趣

鳴玉臺는 안동 서후면 태장리에 위치한 봉정사 입구에 있는데, 그 계곡

26) 『退溪先生文集內集』卷43「陶山六曲之二」其一.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蕭灑한 데 / 萬卷生涯로 樂事이 무궁하야라 / 이듬에 往來風流를 날어 므슴홀고”

27) 『孟子』卷13「盡心」上. “仰不愧於天 俯不忤於人 二樂也 程子曰 人能克己 則仰不愧 俯不忤 心廣體胖 其樂可知 有息則餒矣”

과 바위의 풍광이 수려한 바, 이에 퇴계는 이곳에서 讀書하고 逍遙吟詠하다가 시 두 편을 남기게 된다. 차후에 그의 제자들이 명옥대 한 자락에 蒼巖精舍를 세워 스승의 학문정신을 기렸는데, 이 정사의 이름은 퇴계가 지은 〈鳴玉臺〉시에서 따온 것이다.

명옥대 대의 예전 이름은 낙수였는데 지금 육사형의 시, “나는 샘이 셋어 내려 옥을 올리네.”에서 취하여 고쳤다. 봉정사의 동문에 여러 층으로 된 기암(奇巖)이 있어, 높이는 두어길이 되는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 쏟는 것이 가장 그 경내의 아름다운 곳이 된다. 지난 병자년(1516년) 봄에 나는 종제(從弟) 수령(壽苓)과 함께 이 절에 깃들여 글을 읽으면서 자주 여기 나와 노닐었는데, 공생(貢生) 권민(權敏義), 강한(姜翰)도 따랐었다. 떠난 뒤로는 다시 올 인연도 없었거니와, 내 종제(從弟)도 불행히 일찍 세상을 버렸고, 권(權), 강(姜) 두 사람도 역시 죽은 지가 오래였다. 나는 지금 나그네의 곤한 몸으로 일행 없이 홀로 와서 지난 일들을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시는 다음과 같다.²⁸⁾

此地經遊五十年	이 땅에 노닌 적도 어느덧 십 해라
韶顏春醉百花前	고운 청춘 꽃 앞에서 취하도록 마셨더니
只今攜手人何處	손 마주 잡던 사람 지금은 어디 가고
依舊蒼巖白水懸 ²⁹⁾	의구한 푸른 바위 하얀 물이 매달렸네.

이처럼, 퇴계는 직접 巖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實景을 조망하게 될 때에도, 있는 그대로의 外景을 그려낸다거나, 자연의 흥취를 읊조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 담겨진 불변의 이치를 확인하는데 마음을 썼다. 반세기 전부터 왕립하였던 이 곳의 풍광은 변함없이 옛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데 비해,

28) 『退溪先生文集內集』卷4. “鳴玉臺 臺舊名落水 今取陸士衡詩 飛泉漱鳴玉之語 改之 寺之洞門 有奇巖數層 高可數丈 水從上瀉下 最爲一境佳處 往在丙子春 余與從弟壽苓 棲寺讀書 屢遊於此 貢生權敏義·姜翰從之 既去 無因再來 而吾弟不幸早世 權姜二生死亦已久 余今旅困之餘 踽踽獨來 撫事興懷 寧不慨然 詩云”

29) 『退溪先生文集內集』卷4.

그 시절 이곳에서 함께 글을 읽었던 道友들은 이미 고인이 되어 만날 수 없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연물의 영원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대조시켜 희비가 교차되는 감정의 굴곡을 보이다가도, 영원한 不動의 자세를 간직한 바위를 예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시상을 의연하게 매듭짓고 있다.

특히, 結句의 “蒼巖”은 依舊한 바위의 偉容을 예찬한 말인데, 후대에 退陶文人들은 이 말을 편액으로 하여, 명옥대 곁에 蒼巖精舍를 세움으로써, 스승이 머물렀던 유적지에 그의 고결한 시정신을 칭양하였다.

鳴玉臺

獨立高歌宇宙間
草堂身勢故清寒
春風座上恒無歇
活水源頭少未乾
討古不順探禹穴
着工何必入匡山
一窓可做三冬足
莫使光陰付等閒³⁰⁾

명옥대에서

은 우주에 우뚝 서서 드높이 소리하니
초당에 있는 내 마음도 짐짓 청한해지네.
봄바람은 스승 계시던 자리 위로 쉴 새 없이 불어오는데
근원에서 힘차게 흐르는 물은 조금도 마르지 않네.
옛것을 탐구하러 우혈을 찾는 것도 순탄치만은 않은데
공부를 시작함에 하필 광여산(巨廬山)에 들어가야 하나
한 창가는 가히 삼동이라도 족히 공부에 힘쓸 만하니
寸陰을 등한하게 여기지 말 것임.

이 시를 지은 一竹齋 辛乃沃은 『陶山及門錄』에 수록되었으며, 受學하기 위해 영월에서 안동으로 移居하였던 門下人이다.

이 시에서는 落水臺에서 鳴玉臺로 이름을 命名한 스승의 志趣를 되새기면서 시상을 열고 있다. 즉, “鳴玉”의 연원은 바로 陸士衡의 시에서, “飛泉漱鳴玉”을 전고로 하고 있는데, 위의 “獨立高歌宇宙間”은 “鳴玉”과 같이 흐르는 이 곳의 물소리를 시화한 것이기도 하다. 스승 퇴계가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晝夜에 그치지 아니하는가.”라고 한 것처럼, 스승이 남긴 자취를 좇아 오른 대에서 자신도 스승의 학문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30) 이 작품은 2004년에 제작된 『鳴玉臺史蹟誌』를 참조하였다.

나아가, 이곳에서 완상하는 가운데 속세에 혼탁해진 마음조차 “清寒” 곧, 맑고 시원한 마음으로 치유된다고 설파하여, 명옥대로 명명한 스승 퇴계의 지취는 바로 이러한 맑고 시원한 마음을 함양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퇴계는 맑고 시원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을 그 치유 대상으로 삼았다 하겠다. 그가 아꼈던 청량산이 그러했으며, 이곳 명옥대 역시 그에게 이러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었던 것이다. 명옥대는 淸心寡慾을 위한 淸涼劑로써 퇴계가 그 문도들에게 선사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스승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퇴계는 상자연의 지취를 담아 제자들에게 자연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일깨워준 것이었다. 명옥대에 오른 작가 또한 이러한 스승의 정신을 기리며, 朱子의 〈偶成〉에서의 “一寸光陰不可輕하라”는 참뜻을 가슴에 각인하고 있다.

出山題鳴玉臺

白水蒼巖境益奇
無人來賞澗林悲
他年好事如相問
爲報溪翁坐詠時

산을 떠나면서 명옥대에 쓰다

하얀 물 푸른 바위 경계 더욱 진기한데도
구경 오는 사람 없어 시내 숲이 슬퍼하네.
이 다음에 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행여나 묻거든
계옹(溪翁)이 여기 앉아 시 읊던 때를 알려주게.³¹⁾

이 시에서 퇴계는 하늘이 천등산 명옥대의 山水에 부여한 稟受를 한마디로, “白水蒼巖境益奇”로 나타내고 있다. 이 곳의 바위와 물을 아끼는 그의 마음은 오직 그 두 자연물이 이루어내는 壯觀이 珍奇하다고만 했을 뿐더러, 그러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더 이상의 修辭에는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는 이 시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진기한 풍광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들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급급하여 세속적인 일에

31) 『退溪先生文集內集』 卷4.

더 신경을 쓴다는 점에 경중을 울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물에도 감정을 부여하여 의인화하였는데, 承句의 “澗林悲”가 그것이다. 비애감에 휩싸인 자연의 마음은 지금 이곳에서 下山하고 있는 퇴계의 심정과 다를 바 없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상하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하고 싶고 그들에게 은택을 내리고 싶은 대자연의 드넓은 가슴은 이렇듯 悲感을 지니게 된 것으로 묘사하였다.

퇴계는 이 곳에 오게 되면 “白水”와 “蒼巖”이 지닌 淸純한 기상을 체득할 수 있어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爲己之學³²⁾하는 길 이 되며, 聖學에 가까워지는 方途임을 일깨우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好事客의 입을 통하여서라도 이곳이 명승지로써 학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자연에 대한 酷愛과 학문에 대한 熱情은 불가분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鳴玉臺亭宇上樑文

兒郎偉

天燈山趾 鳳停寺前

嶠率而巖麓交

蔥蘢而草樹茂

一道飛泉出洞口

十丈巨石橫山門

曲折飛回灑晴雨於白日

潺湲汨瀾響天球於靑林

幸得溪上李先生

명옥대 정우 상량문

어기영차

천등산 끝자락이요, 봉정사 앞이로다.

높고 험하여 바위산이 교차하고,

푸르고 무성하여 초목이 우거졌도다.

한 근원에서 나는 샘은 洞口로 나가고,

열 길의 큰 바위는 산의 문을 가로질렀도다.

굽이굽이 내리 돌아 비 개인 白晝에도 비를 뿌리고,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려 푸른 산림에 하늘 구슬 소리 울리도다.

다행히 제상의 이 선생으로부터 이름을 얻었는데,

32) 『退溪先生言行錄』卷1「教人」. “先生曰 君子之學 爲己而已 所謂爲己者 卽張敬夫所謂無所爲而然也 如深山茂林之中 有蘭草 終日薰香而不自知其爲香 正合於君子爲己之義 宜深體之”

是惟海東朱夫子	이 분이 바로 海東의 朱夫子이다.
雅有山林高致	본디부터 산림에의 고상한 풍치가 있으시어
每喜泉石幽禱	언제나 泉石을 조용히 답십함을 즐기셨도다.
.....	
泰山云類上類失其宗仰	태산이 무너졌다 하니 선비들은 높이 우러르던 분을 잃었으나
林泉如昨後學尙其遺塵	산천은 전과 같으니 후학들은 스승의 끼치신 티끌이라도 숭상하도다.
數間虛亭奧自青蛇經始	두세 칸 虛靜한 정자는 조용하고 깊숙한데 지난 을 사년에 짓기 시작하였고
二絕遺什頓今蒼厓增輝	두 편의 절구로써 남기신 시편들이 가지런히 있어서 지금도 푸른 물가를 더욱 빛내도다.
.....	
拋櫟西	들보를 서쪽으로 던지니,
鶴山下招提	학가산 아래에 절이 있도다.
先生謝官日	선생이 벼슬을 그만두신 날에도
於此亦携藜	여기에 청려장 짚고 오셨네.
.....	
先生讀書庵	선생이 독서하시던 암자에는
至今有遺迹 ³³⁾	지금도 끼치신 자취 남아 있도다.

이 글을 제작한 訥隱 李光庭(1674-1756)은 李玄逸, 李裁의 문인인데, 환로에 뜻을 두지 않고 講學에 전념한 학자였다.

위의 상량문에서는 퇴계를 “海東의 朱夫子”라고 別稱함으로써, 그의 학문정신을 追頌하고 있는데, 이는 스승이 밟아간 길을 기꺼이 좇으며 그의 학문을 계승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자긍심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작가는 “雅有山林高致 每喜泉石幽禱”을 통해, 스승의 삶은 산림처사의 생활에서

33) 이 글은 『訥隱先生文集』에 실려 있지 않아, 『鳴玉臺史蹟誌』를 참조하였다.

체득되는 그러한 고상한 풍치를 토대로 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바, 이는 곧 스승의 정신세계를 고결하게 이끌었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퇴계는 26세 때 〈山居〉시를 읊으며 그가 평생의 사업으로 행해야 할 일은 바로 산수자연 속에서 학문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다른 儒家들 처럼 원래 兼善하면서 학문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혼탁한 당대의 현실에서는 이를 수 없는 이상이란 것을 절감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귀거래 생활을 회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귀거래 생활의 편던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또한 명옥대임을 보여주기 위해 작가는, “두 편의 절구로써 남기신 시편들이 가지런히 있어서 지금도 푸른 물가를 더욱 빛낸다(二絶遺什頓今蒼厓增輝).”고 하였던 것이다. 또, 그는 이곳에서 벗과 다름없는 자연물을 곁에 두고, 학문에 정진하였던 스승의 餘痕을 감지하며, “선생이 독서하시던 암자에는 지금도 끼치신 자취 남아 있다(先生讀書庵 至今有遺迹).”고 묘사하고 있다.

“들보를 서쪽으로 던지니 학가산 아래에 절이 있도다. 선생이 벼슬을 그만두신 날에도 여기에 청려장 짚고 오셨네(拋樑西 鶴山下 招提 先生謝官日 於此亦携藜).”에서는, 속세를 멀리 하고 이곳에 깃들여 사는 스님과는 自然의 天真無垢한 마음으로 교유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杜甫의 〈遊龍門奉先寺〉에, “已從招提遊 更宿招提境”이라고 한 데서 그 의상을 따온 것이다. 스승 또한 作詩할 때 두보의 고결한 시정신을 기렸는데,³⁴⁾ 후학 역시 그러한 스승의 시정신을 계승하여 스승의 삶을 칭양하고 있는 것이다.

3) 錦陽精舍에 깃든 超然한 氣象

금양정사는 풍기읍 금계에 있는 건조물로, 이 지역에 연고를 두었던 금계

34) 『退溪先生文集內集』卷3〈和中閒居 二十詠〉其四. “詩不誤人人自誤 興來情適已難禁 … 栗里賦成真樂志 草堂改罷自長吟 … 緣他未著明明眼 不是吾緘耿耿心”

황준량의 願望으로 자신의 生前에 着工은 되었으나,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이 건조물은 死後에야 完工하게 된다. 퇴계는 제자의 이루지 못한 뜻을 위로하여 1566년에 이 정사의 창건내력에 얽힌 내용을 完文으로 제작하였고, 이후 謙庵 柳雲龍(1539-1601)이 壬亂 무렵에 풍기군수로 부임하였을 때 다시 손질하여 揭板하게 되었다.

금양정사 완문

여기 금양정사는 옛 道友 금계주인 황준량이 만년에 학문을 닦고 도를 강론하는 처소로 삼으려 했던 곳이다. 정사가 채 이루어지기 전에 주인은 신선되어 가 버렸고, 일을 맡아보던 승려 行思가 유지를 받들어 역사를 마치고 착실히 지켜 왔음은 가장한 일이다. 만약 훗날에, 차차 세월이 오래 지나게 되어 이 일이 점차 잊혀지면, 관청에서 이 정사의 내력을 모르고 여느 절의 경우와 같이 여겨 승려에게 온갖 구실을 시켜 승려가 이곳에 몸담아 있지 못하게 하면 이곳을 지켜 돌볼 사람이 없어 황폐해 질 것이다. 정녕코, 仁慈함을 바라며, 이 정사의 유래를 갖춘 完帖을 精舍와 종무소에 내려, 이후로는 지키는 승려에게 영원히 부역을 면제하고, 이 정사를 수호하는 데에만 전념하게 하여, 못 자체들이 왕래하며 독서하게 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한 주인이 남긴 회한을 조금이라도 풀게 되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금계정사의 주인과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우정이 있으므로, 내가 여기에 와서 옛 마을을 지나는데, 옛 벗은 간 곳 없고 함께 들던 피리소리만이 들려와서 서글픈 심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니, 정사가 길이 보전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옛 일을 생각하는 정을 곁들여 감히 이와 같이 부탁하노니 이황은 두려운 마음이 든다. 가정 병인(1566년) 2월 일³⁵⁾

35) 이 글은 『退溪先生文集』에 실려 있지 않아, 영주문화원에서 간행한 『榮州金石文全集』을 참조하였다.

「錦陽精舍完文」, “此間 有所謂錦陽精舍者 亡友錦溪主人黃君俊良 擬爲晚年藏修之所也 舍未訖功 而主人仙去 幹僧行思 能奉遺志 畢就而謹守之 事甚嘉尚 倘或後來 寢遠寢忘 官不知來山 視同在刹之例 役使僧人 令不得存接 則無人守護 精舍鞠爲茂草 丁寧欲望仁慈 深軫此意 具山下完帖于舍中及維羅所 自今以後 守護僧人 永除役使 俾得專意守護 庶其家子弟等輩 往來讀書於其中 因以少釋主人有志未就

이 글은, 1566년에 퇴계가 병조판서를 제수 받고 도성으로 향해 갈 때, 發病하게 되어 풍기관아에서 임시로 머물러 있던 기간에 제작된 것이다. 퇴계는 이러한 글을 남겨, 제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출함은 물론, 앞으로 도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위의 完文은 精舍의 준공을 미처 보기도 전에 卒去한 제자를 생각하며, 그 정사를 잘 관리하여 講學의 공간으로 보존되기를 당부하는 퇴계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금계는 농암의 孫壻가 된 이후 퇴계를 만났으며, 그의 마을을 오가며 가르침을 받았다. 금계는 향촌의 부임지에 갈 때마다, 그곳의 서원을 신축하거나 보수하여 마을 사람들의 교육을 도모했다. 퇴계가 별세하기 7년 전에 그가 이미 줄하니, 퇴계는 행장을 지어 제자의 삶을 빛내주었는가 하면, 만사를 제작하여 “매번 朱子 글을 남과 함께 읽을 적에 추억하는 눈물을 몇 번이나 흘릴 것인가(朱書每與人同讀 幾憶平生淚共流)”³⁶⁾라고 애도하기도 하였다.

퇴계는 이곳에서 강학의 뜻을 펴지 못한 제자의 회한을 비통한 심사로써 표출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자의 宿願이 바로 이곳에서 실현되어 마침내 後學들의 학문을 日就月將케 하는 場의 역할을 하여야 함을 언표한 것이다.

“금계정사의 주인과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우정이 있다(淸與溪主有契意)”고 한 대목에서는, 퇴계와 금계가 道友와 같은 친분을 지니고 교류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來過故里 不勝山陽鄰笛之愴”을 통해, 이곳을 마치 죽림칠현이 모여 의기투합하던 중국의 산양현으로 연상하며, 벗이 떠나고 없는 이 자리에 구슬픈 피리소리만을 들어야하는 惆愴感을 표출하고 있

之餘憾 豈不幸甚 淸與溪主有契意 來過故里 不勝山陽鄰笛之愴 欲圖護此舍 以寓念舊之情 敢此瀆稟 淸惶懇 嘉靖丙寅二月日”

36) 『退溪先生文集內集』 卷3 「黃星州仲舉挽詞 二首」.

다. 죽림칠현 고사에서 따온 仙的 境界는 그들의 교유가 俗됨을 벗어난 超逸한 기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금양정사 완문에 대한 발문

금계선생은 퇴계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좇아 배워 만년에는 조예가 더욱 깊어갔다. 만일 천수를 더 누렸더라면 도통의 연원이 틀림없이 금계선생에게로 이어졌을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불행히 일찍 돌아가셔서 퇴계선생께서 天喪의 한탄을 거듭 발하면서 통석해 하시는 것이 극도에 이르렀다. 일찍이 금계선생은 정사를 금계 위에 세우다가 중도에 돌아가셨다. 정사를 수호하는 승려들에게 관아의 부역이 너무 심해 지탱하기가 어려웠는데, 병인년에 퇴계선생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이 고을을 지나가시다가, 정사가 황폐한 것을 알고 탄식하며 군수에게 길이 수호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때 군수 조완벽 공이 승려들에게 통첩하여 특별히 관청 부역을 면제해주고 수호케 하도록 하였는데, 세월이 변하고 또한 喪亂을 겪은 이후여서 처음 같지 아니한 것이 오래되었다. 이제 벽 위에 붙어 있는 스승의 泚墨을 보니 감회가 깊다. …

이제 퇴계선생의 기문과 조 군수의 帖文을 板刻하여 향사당의 벽 위에 붙이고, 고을 전체의 힘으로 영원토록 보수하게 하니, 지금부터 鄉所의 여러분들은 잘 준수하여 실수가 없게 하고 승려들을 잘 타일러서 수직승 세 사람은 영구히 관아의 부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여, 퇴계선생의 지극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³⁷⁾

이 글을 제작한 謙庵 柳雲龍(1539-1601)은 안동의 하회에 거처하면서 퇴계에게 受學하였으며, 특히, 혼탁한 세상에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아

37) 柳雲龍, 『謙庵集』 卷之五 「錦陽精舍完文跋」, “錦溪先生從遊退溪之門 晚年用功最爲親切 若使天假之年 吾知龍門之響定續於先生無疑矣 不幸早世 天喪之歎遽發 退溪之痛惜庸有極乎 初先生構精舍於錦溪之上未就而先生歿 守僧爲官役侵殆不能支 丙寅年間退溪先生承召過郡 聞其臺榭荒廢 因爲之感歎寄懷郡宰託以永護之事 其時郡守趙公完璧下帖維羅特加完護 年代變遷 且經喪亂權輿之不承亦已久矣 今讀壁間遺墨不勝感憤 … 今刻退溪記文及趙宰帖文于鄉射堂壁上 以爲一鄉永守故事繼 自今鄉所諸公遵而不失 申勅維羅具告守宰守僧三人永除官役期 無負退溪之至意不勝幸甚”

서 고결한 정신을 견지하고 살아갔다. 스승 퇴계의 학문정신을 계승한 제자로서 금계의 삶과 학문에 주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승려에게도 관아의 부역을 면제하게 하여 이곳을 수호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申申當付하는 정황에 힘입어, 금계의 학문정신이 儒者의 본보기로 계승될만한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위의 글은 이곳이 退陶門下人인 금계를 回憶하는 장소이므로, 장차 후학들이 여기에 와서 금계의 뜻을 기리며 학업에 정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앞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로지 精誠을 다해야 함을 일깨운 글이기도 하다.

겸암은 師弟關係로 맺어진 퇴계와 금계의 인연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生死를 초월한 師弟間의 영원한 交分에 초점을 두고 있다. “퇴계선생의 지극한 마음(退溪之至意)”이라고 언급한 까닭은, 제자를 아낀 퇴계의 마음이 이와 같이 끝없는 것임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금양정사는 퇴계와 겸암을 위시한 退陶門下의 관심과 염려가 지대하였던 바, 이는 곧 古色蒼然해기기를 기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깃든 곳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로 스승보다 일찍 死去한 제자의 精舍이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이며, 더욱이 그가 생전에는 완공을 보지 못하여 여기에서는 學者로서의 宿願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더욱 그리했던 것이다.

錦陽精舍	금양정사
石竇蒙泉出	돌구멍에서 샘물 나오고
屨顏錦樹開	산에는 단풍이 비단을 수놓은 듯.
秋風故山興	가을바람은 옛 산의 흥을 자아내니
一醉降仙臺 ³⁸⁾	신선 내려온 대에서 한번 취해 분다네.

이 시는 금계가 지은 것인데, 여기에서 그의 山水之樂은 바로 퇴계시 가

38) 黃俊良, 『錦溪集內集』 卷之三.

운데 〈溪居雜興〉³⁹⁾의, “靜裏看時興 閒中閱往芳”에서 나타나는 도학자의志趣와 동계의 것이다. 程子(程顥)조차도 그의 〈秋日偶成〉에서 ‘四時佳興與人同’이라 하여 시절의 興致도 사람과 같다고 하였지만, 퇴계에게 ‘시절의 興致’는 바라보는 대상이 되고 있을 뿐(‘看時興’), 인간들의 삶과 관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퇴계의 자연인식이 금계시의 시적 정서와도 상통하는 것임을 위의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계는 눈앞에 펼쳐진 萬山紅葉의 實景 자체에 관심을 보이게 되지만, 그의 시 역시 퇴계시의 곳곳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경물에 대한 세밀한 묘사는 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다만 시의 意趣를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바깥쪽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밝히고야 한다. 그는 혼탁한 塵世에서 때를 묻히는 것을 혐오하여, 신선의 공간으로 인식된 산수에서 超逸의 경지를 꿈꾸며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다만,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즐거움은 항상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탈속을 꿈꾸지도 않았으며, 方外之士도 아니었으므로, 또다시 세속의 한 지점에 복귀하여 현세의 주어진 삶의 질서와 본분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야 했다. 이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잠시 동안이나마 답답한 세속의 일에서 벗어나 超逸의 의취로 마음을 쇠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孔孟의 학문과 觀水樓의 사유공간

관수루⁴⁰⁾는 현재 의성군 단밀에 위치한 누각으로, 여기에는 퇴계와 그 문하인들의 편액이 즐비하여 있는데, 그들의 시편에는 觀水의 뜻을 사유하

39) 『退溪先生文集內集』 卷1.

40) 관수루의 편액 전체를 다룬 논문으로는, 이구의 교수의 『觀水樓 吟詠考』(『尙州文化研究』제6집, 尙州文化研究所, 1996, 12, 참조.)가 있다. 이와 달리, 본고에서는 퇴계학맥과 관련된 편액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그 성격유 고찰한 것이다.

는 儒者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觀水樓라는 樓閣의 名稱은 『孟子』의 離婁章句에 근거를 둔 것인데, 특히 맹자가 물을 예로 들어가며 공자의 道의 경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⁴¹⁾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근원이 풍부한 물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흘러나와서 멀리 바다로 들어간다. 물의 근원이 풍부해야 그 물이 마르는 일없이 언제나 흐를 수 있듯이, 도에 있어서도 그 근본이 확립되어야 公用이 무궁무진한 것이다. 공자는 변함없는 물의 流動, 즉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의 이치를 군자의 수양과 비슷하다고 여겼으므로 이와 같이 물을 예찬하였던 것이다.

洛東觀水樓

洛水吾南國

尊爲衆水君

樓名知妙悟

地勢見雄分

野濶烟凝樹

江清雨捲雲

匆匆催駟騎

要爲趁公文⁴²⁾

낙동강의 관수루에서

낙동강물은 우리 남쪽 나라에서

못 강물의 으뜸이로다.

누각의 이름은 오묘한 깨달음 알게 하고

땅의 형세는 웅대하게 분리됨을 보네.

들은 넓어 연기가 나무숲에 영기고

강은 맑아 비온 뒤 구름 걷혔네.

충충히 역마를 재촉해 달리는 것은

공문을 진달하기 위함일세.

위의 시에서는 “觀水樓”라는 樓閣名에 깃든 유가적 시정신을 고취하는 것이 詩作의 취지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관수루의 주변경관에 대한 寫景은 “野濶烟凝樹 江清雨捲雲”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는데, 평야를 바라보며 활연해지는 가슴과, 아울러 강물을 바라보며 청정한 마음으로 분발하려는 의지를 제공해주는 것에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따름이다.

41) 『孟子』卷8「離婁」下。“徐子曰 仲尼亟稱於水曰 水哉水哉 何取於水也 孟子曰 原泉混混 不舍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 有本者如是 是之取爾”

42) 『退溪先生文集別集』卷1.

“樓名知妙悟”에서 알 수 있듯이, 觀水라는 누각명은 유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를 모토로 한 것이다. 관수루라는 공간은 바로 “妙悟” 즉 오묘한 깨우침을 知覺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시구에서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의 이치가 군자의 수양과 비슷하다고 여겨 물을 예찬하였던 공자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忠君을 기저로 하는 윤리의식이 표출되기도 하는데, 이는 공무수행에 대한 사명감에서 公人意識을 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곳에서 오래도록 머무르며 좀더 見物致理를 궁구하고 싶으나, 떠날 수밖에 없는 아쉬운 마음은 公人意識과 오버랩되어, 尾聯의 “匆匆催駟騎 要爲趁公文”으로 나타나고 있다.

퇴계가 지은 그 밖의 관수루 누정시에서는 이러한 아쉬움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자연합일의 의지로 충만해진 마음을 보이고 있다.

登尙州觀水樓

鑿道緣崖北

飛樓翼岸東

試登槎上漢

久立腋生風

野帶浮嵐迥

江含落照紅

方知塵世苦

回首溪漁翁⁴³⁾

상주의 관수루에 올라

길 뚫어가며 벼랑 따라 북쪽으로 오르자

나는 듯한 누각이 언덕 동쪽에 나래 뻗네.

배를 타고 은하수에 오른 듯

오래 서 있으니 겨드랑이에서 바람이 이네.

들판은 아른아른 연기 띠어 멀고

강물은 지는 노을 머금어 붉구나.

티끌세상 괴로움을 바야흐로 알겠기에

고개 돌려 고기 잡는 노인을 부러워하네.

詩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수루 일대는 예전에 상주지역에 속하였는데, 1941년에 그곳의 행정구역이 의성지역에 편입되어 지금은 의성 관수루로 불린다.

43) 『退溪先生文集續集』 卷1.

위의 시를 보면, 퇴계의 맑고도 드높은 기상은 의기충천하여 자못 하늘 높이 솟아오를 것 같다. 飛翔하려는 듯한 그의 기상은 首聯의, “飛樓翼岸東”과, 頷聯의, “試登槎上漢 久立腋生風”으로까지 충만되어 있다. 관수루에서 그가 체득한 고상한 풍격은 신선의 그것과도 다를 바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仙境 같은 승경지에 이르러 비로소 구현된 자연합일이므로, 그 즐거움을 향유하는 시간이 오게 되면 그의 충일된 마음은 銀漢을 오간다는 仙人들도 부럽지 않다는 뜻이다.

미련에서 “方知塵世苦 回首羨漁翁”이라고 하여, 흡사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어부의 유유자적한 삶이 부럽다고 말한 것도, 부귀영화로만 가득 채운 세속의 삶이란 곧 재앙과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계는 마음속에 사리사욕을 제거하고 오로지 위기지학을 실천하는 삶에 의미를 두어 제자들에게 이를 가르쳤던 것이다. 관수루 제영시 가운데 다음의 시는 이러한 스승 퇴계의 시정신을 기리는 작품에 해당된다.

<p>泊觀水樓 鄒聖書中語 退翁壁上題 觀水固有術 斯言豈余欺⁴⁴⁾</p>	<p>관수루에 배를 대고서 『맹자』책 속에 쓰여 있는 말을 퇴계선생께서 벽 위에 쓰셨도다. 물 보는데 진실로 妙術이 있다 하니 이 말씀 어찌 나를 속이리오.</p>
---	---

이 시를 지은 江臯 柳尋春(1762-1834)은 상주의 우천에 거처하였는데, 立齋 鄭宗魯의 문인이었으며, 청백리로 뽑혔다.

이 시에서는 관수루 주위의 경관에 대한 묘사는 돌보지 않고 다만 관수루에 편액으로 걸려 있는 퇴계의 시를 우러르며 스승 퇴계의 정신을 반추하는

44) 柳尋春, 『江臯先生文集』卷之一「泊觀水樓 作十三絕 其十一」.

것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시가 작가의 儒家的인 시정신에 입각하여 지어진 것임은 물론이다.

퇴계가 지은 〈洛東觀水樓〉시 가운데 “樓名知妙悟”句를 근거로 하여, 작가는 “觀水固有術”을 읊조리며, 흥취보다는 의취를 드러내려 애쓰고 있다. 특히, “鄒聖”을 서두로 한 까닭은 퇴계의 詩句가 바로 『맹자』의 「이루」장구를 전고로 삼았기 때문이다. 『맹자』에 실린 공자의 물 예찬론을 따르면, 근원이 풍부한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도에 있어서도 그 근원이 확립되면 공효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을 일깨우는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退次退溪先生韻

公事頻過洛
舟人識使君
江聲千里大
地勢二州分
漁戶排津樹
鹽帆掣海雲
陶山空振望
歌短不成文⁴⁵⁾

삼가 퇴계선생시에 차운하여

공무로 인하여 자주 낙동강을 지나가노라니
배사공도 또한 나를 알아보는구나.
강물소리는 천리까지 퍼지는 듯한데
땅의 형세는 두 고을로 나뉘어졌네.
어부의 집에는 나뭇나무 즐비하고
소금 실은 범선은 바다구름을 끌고 왔네.
도산을 공연히 구슬뜨게 바라보는데
노래가 짧아 문장으로 만들지 못하네.

위의 시는 性齋 許傳(1797-1886)이 제작하였는데, 그는 黃德吉의 문인으로 『上儀』를 지어, 선비의 생활의식을 집대성하기도 하였다.

위의 시에서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갈 때마다 낙동강의 나루터 근처에 위치한 관수루와 그 주변경관을 놓치지 않은 시인의 세심한 관찰력이 돋보이는데다가, 웅대한 기상까지도 잘 표현되어 있다.

특히, 頷聯의, “江聲千里大”와, 頸聯의, “鹽帆掣海雲”을 살펴보면, 눈앞

45) 許傳, 『性齋集』.

의 강물을 보고 천리 밖의 大河를 생각하는가 하면, 나루터에 정박한 소금 교역선의 돛에 비낀 구름을 보고, 아득히 大洋을 생각하는 작가의 기상은 자못 웅대하다.

이 시는 뱃사공의 人情을 받는 기쁨과 스승을 謁見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하여 희비가 교차되기도 한다. 그의 마음은 그 옛날 관수루에 올라 <登尙州觀水樓>시와, <洛東觀水樓>시를 제작하였던 스승 퇴계를 회억하며 스승의 정신을 반추하고 있다. 그도 또한 지난날에 스승이 행한 바와 같이 孔孟을 떠올려 觀水의 의미를 확인하였겠으나, 스승을 잃은 슬픔에 감정이 고조되어 이를 추스르기가 힘듦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4. 맺는 말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學退溪 정신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하여, 退溪 文學精神과 樓亭題詠에 반영된 學問精神의 근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퇴계는 嘉言과 善行으로 言行一致 내지는 知行合一을 실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을 뿐더러, 제자들에게 儒家的 삶의 목표와 이와 관련된 실천 방법을 적극적으로 일깨웠다. 이로 인하여, 聖人の 말씀을 좇아 평생 학자의 마음으로 공부하였던 점은 퇴계 문도들이 견지한 생활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승경지에 자리한 누정이 강학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역대로 사대부들의 사랑을 받은 까닭은 聖人을 흠모하는 儒者들의 정신세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퇴계는 어쩔 수 없이 산수자연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山水之樂을 알았고 이로 인해 삶의 목표가 山林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는데, 산수자연이 퇴계에게 주는 혜택은 朝市에서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산수자연물에 힘입어, 성학에 잠심하여 마음을 편안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서 비롯된 山水之樂을 누정제영을 통해 직접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런 때에 그의 작품에서, 實景의 敘景은 단지 의취를 알리기 위한 예비적 역할을 할 뿐이다. 퇴계는 누정과 그 주변경관에 대한 시를 제작할 때에도 변함없이 曾子, 顏子, 屏山, 朱晦翁의 학문정신을 되새기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퇴계 문인들의 누정제영에 반영된 학퇴계 정신의 계승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퇴계와 그 문도들이 제작한 경험정 제영시편들은, 대체로 누정과 주변경관은 遊賞의 대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과 자연경관이 그렇게 있는 이유 즉 내재하는 理를 찾아내는데 필요로 하는 관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금계의 경우, 대자연의 모든 생명체에서, 심지어 풀 한 포기에서도 하늘의 이치를 생각하는 스승의 의취에 공감하며, 자신도 “風月無邊趣”라고 읊조리며 스승에게 속마음을 보이고 있다. 송암도 역시, 孟子의 “俯仰不愧天地”를 근거로 하여, 스스로 公明正人한 마음을 일깨우고 있다.

명옥대에 오른 퇴계는 영원한 不動의 자세를 간직한 바위를 예찬하는 것으로, 시상을 의연하게 매듭지었다. 특히, “蒼巖”은 依倚한 바위의 偉容을 예찬한 시어인데, 후대에 退陶文人들은 이 말을 편액으로 하여, 명옥대 곁에 蒼巖精舍를 세움으로써, 스승이 머물렀던 유적지에서 그의 고결한 시정신을 칭양하였다. 즉, 一竹齋는 속세에 혼탁해진 마음조차 “清寒” 곧, 맑고 시원한 마음으로 치유된다고 설파하여, 명옥대라고 命名한 스승 퇴계의 지취는 바로 이러한 맑고 시원한 마음을 함양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또, 訥隱의 경우, 스승이 밟아간 길을 기꺼이 좇으며, 그의 학문을 계승하

며 살아가는 제자의 자궁심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퇴계의 경우, 卒去한 제자 금계의 이루지 못한 宿願을 돕기 위해, 1566년에 금양정사에 대한 完帖을 제작한 바 있다. 그는 竹林七賢의 故事를 전고로 하여, 금계와의 교유 또한 이들처럼, 俗됨을 벗어난 超逸한 기상으로 맺어진 것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검암의 글에서는 師弟關係로 맺어진 퇴계와 금계의 인연에 대해 상술하였는데, 그것이, 生死를 초월한 師弟間의 영원한 交分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금계의 제영시는 퇴계의 영향을 받아 그 意趣가 강조되는데, 이는 곧 혼탁한 塵世에서 때를 묻히는 것을 혐오하여, 신선의 공간으로 인식된 산수에서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꿈꾸는 超逸의 경지다.

한편, 퇴계는 관수루에 올라 이곳이 바로 “妙悟” 즉 오묘한 깨우침을 知覺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라고 칭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의 이치가 군자의 수양과 비슷하다고 여겨 물을 예찬했던 공자의 가르침에 공감하였다. 또, 忠君이외에는 여념이 없을 때 그의 마음은 公人意識을 표출하게 된다. 江臯의 경우, 편액으로 걸려 있는 퇴계시를 우러르며 스승 퇴계의 정신을 반추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경건하게 할 때, “觀水固有術”을 읊조리며, 흥취보다는 의취를 드러내려 애쓰고 있다. 性齋의 작품에서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갈 때마다 낙동강의 나루터 근처에 위치한 관수루와 그 주변경관을 놓치지 않아서 빼어난 안목을 지닌 시인기질을 보일 뿐만 아니라, 웅대한 기상을 펼쳐 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퇴계에게 있어서 자연에 대한 酷愛와 학문에 대한 熱情은 불가분의 것이었거니와, 이는 퇴계학파의 문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후대에까지 處士文學의 본보기로 계승되어왔다. 본고는 누정제영에서 확인된 意趣를 통하여, 퇴계를 흠모하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참고문헌】

『論語』

『孟子』

『詩經』

『詳說古文眞寶大全』

『退溪全書』

『江臯先生文集』

『謙庵集』

『錦溪集內集』

『東學』

『東賢學則』

『性齋集』

『松巖集』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退溪門下 6軒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퇴계연구소,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서, 2004.

鳴玉臺史蹟碑建立推進委員會, 『鳴玉臺史蹟誌』, 한빛, 2004.

榮州文化院, 『榮州金石文全集』, 한빛, 1999.

이구의, 「觀水樓 吟詠考」, 『尙州文化研究』 제6집, 尙州文化研究所, 1996.

李貞利, 「退溪詩 研究 - 樓亭漢詩를 中心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2집, 한국
사상문화학회, 1998.

_____, 『退溪 李滉의 詩文學 研究』, 보고서, 2003.

_____, 「鶴峯의 樓亭詩 研究」,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4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4.

_____, 「退溪 李滉의 言行論에 대한 考察 - '東學'관련 古冊을 中心으로」, 『韓民
族語文學』 제46집, 한민족어문화회, 2005.

Abstract

The aspects of succession of Nujeong Jeyoung(樓亭題詠) in respect for the spirit of Toegye of Toegye's scholastic lineage

Lee, Jeong-Hwa

Consequently, what had been mentioned in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Nujeong Jeyoung(樓亭題詠) written by Toegye was tried to realized in the Confucian ideology. Respect for the sprit of Toegye of his scholastic lineage was represent from literature, especially active in Nujeong Jeyoung(樓亭題詠). They had produced in verses under given title at the towered mansion and arbour.

Regard verses written under given title at the towered mansion and arbour as the mountain or river scenery poetry of Toegye and his scholastic lineage, they had revealed a remark full of meaning, having no concern with poetical title.

They had focused on 'rule of heaven' 'freshness' 'transcendence' 'desire for learning' by including constant human nature in text.

Key Word

rule of heaven, freshness, transcendence, desire for learning